

新羅 倭國 사이 境界人

서영교*

| 목 차 |

- I. 머리말
- II. 新羅王子의 倭國 탈출과 康句麗
- III. 磐井亂과 新羅海邊人
- IV. 對馬島의 新羅間諜과 九州의 新羅奴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지금까지 3시기로 나누어 신라와 왜국 사이의 바다 섬에 존재했던 경계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 新羅 訥祗王이 朴堤上(毛麻利叱智) 등 3인을 왜국으로 보냈다. 그들은 人質로 와 있던 未斯欣(微叱許智伐旱)을 신라로 돌려보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왜왕은 신라 使者들의 청을 들어주어 신라왕자 일행을 對馬島로 보냈다. 그때 박제상 등이 경계인들을 시켜 未斯欣을 新羅로 도망하게 하였다.

둘째 경계인들은 九州 磐井이 畿内の 倭에 반란에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신라에 알렸다. 신라는 磐井에게 물자와 인력을 제공하였다. 그러자 磐井는 火國(肥前國·肥後國)과 豊國(豊前國·豊後國)을 억압하여 海路를 차단하고, 高句麗·百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 syk367@naver.com

濟·新羅·任那의 朝貢船을 자신의 쪽으로 유치하였다. 528년 畿內朝廷과 九州 磐井 정권이 전쟁으로 치달았다. 고대일본 최대규모의 내전이였다. 畿內朝廷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힘이 소진되어 대외문제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신라의 가야지역 병합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601년 고구려-백제-왜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신라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었다. 왜국에서 신라 침공을 위한 준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신라는 간첩들을 현해탄 도서지역에 적극적으로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들 중 한명이 對馬島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迦摩多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境界人이었다.

602년 백제는 지리산 중턱 아막성으로 4만 군대를 진군시켰고, 왜는 九州에 병력 2만 6천을 주둔시켰다. 8월 신라는 아막성에서 백제를 막아냈고, 한편 九州에 자객을 잠입시켰다. 왜군의 총사령관 來目皇子가 菟紫에서 병에 걸려 드러누웠고, 출병이 연기되었다. 917년 찬술된 『聖德太子傳曆』 602년 4월 조를 보면 太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新羅奴 등이 將軍(래목황자)을 厭魅(저주)함이 果度하지 않았나 의심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603년 2월에 來目皇子가 사망하자 “聖德太子가 그의 시종에게 이르기를 皇子가 新羅奴에게 살해되었다고.”라고 한다. 新羅奴는 큐슈에서 활동하고 신라의 자객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倭侵의 질곡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상의 경계인 (康旬麗, 新羅海邊人, 新羅奴)들을 결집시켜 활용했다. 그들은 혼육되지 않았고, 바다라는 무한환경에 적응된 야생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신라가 그들의 욕망에 배치되는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인 여러 집단들은 각자의 이해가 있었다. 신라국가는 경계인들의 여러 욕망을 어떠한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그들의 자발성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 고민했을 것이고, 신라의 번영과 그들의 이익이 일치되는 방안을 고안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경계인들은 신라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倭寇로 돌변하거나 倭國에 이용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핵심어: 境界人, 對馬島, 新羅間諜, 磐井亂, 新羅海邊人, 新羅奴

I. 머리말

『삼국사기』 신라 본기를 보면 1대 박혁거세 8년(기원전 50)부터 21대 소지마립간 22년(500)까지 총 59회의 倭기록이 보인다. 그 가운데 36회가 왜의 침공이다. 왜는 550년 동안 꾸준히 신라의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쳐들어 와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갔다. 倭侵은 끊임없이 신라의 힘을 빼는 중기였다.

『廣開土王碑文』에서 알 수 있듯이 永樂 9년(399) 왜침의 규모는 거대했다. 奈勿王이 사신을 보내 광개토왕에게 아뢰기를 “왜인이 신라의 국경에 들어차 城池를 부수고 노객(신하, 즉 신라 내물왕)을 왜의 민(民)으로 삼으려 하니 왕께 귀의해 구원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¹⁾ 400년 고구려군 步騎 5만이 신라에 투입되고 나서야 왜군은 물러났다.

하지만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왜침을 근절시켰다고도 할 수도 없다. 어중간한 상황이 되었다. 417년 訥祗가 實聖을 타도하고 즉위 했을 때 이미 그의 동생 들은 각각 고구려와 왜에 인질로 가 있었다.²⁾

『삼국유사』 기이1 내물왕과 김제상 조를 보면 제상이 寶海(卜好)를 고구려에서 구출할 때 東海의 高城港에 정박한 배를 이용하고 있고, 美海(未斯欣)를 왜국에서 탈출시킬 때에 康句麗라는 뱃사공의 도움을 받았다. 왕자들을 구출한 제상은 海邊人 또는 海島人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신라와 왜국 양쪽 연안사이에는 200km 이상 거리의 바다가 있고, 對馬島·壹岐島 등의 섬들이 있다. 고대의 한일 양측의 사료를 보면 그 광활한 지역에 신라와 왜국을 오갔던 境界人(Marginal man)들의 존재가

1) 『광개토왕비문』 9년 기해,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遣使還告以 □計.”

2)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49)1956, 79-86쪽 참조.

드러난다. 이는 두 중심의 어느 쪽에서도 변경의 장소, 경계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어느 쪽의 중심으로부터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양자를 매개한다는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³⁾

新羅朝廷이 境界人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續日本後紀』에 掲載된 新羅執事省牒全文(836년)에 이익을 넘보아 官印을 몰래 위조하고 가짜로 公牒을 만드는 嶋嶼之人, 상대국의 형편을 엿보는 白水([郎]섬사람)들의 존재가 보인다.⁴⁾

변와의 대결에서 신라가 그 경계인들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필자는 먼저 訥祗王大 王弟 未斯欣의 왜국탈출과 康句麗로 상징되는 水手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다음으로 법흥왕대 九州의 土豪로서 畿內 왜조정을 상대로 전쟁을 한 이와이(磐井)와 그의 從者인 新羅海邊人에 대해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진평왕대 대마도의 新羅間諜과 구주의 新羅奴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II. 新羅王子의 倭國 탈출과 康句麗

400년 왜의 대군이 신라를 휩쓸고 지나간 이듬해 봄-여름에 몹시도 모진 가뭄이 찾아왔다. 한해 후인 401년 7월 고구려에 가서 인질생활을 했던 實聖이 신라에 돌아왔다. 왜군을 신라에서 몰아낸 고구려가 신라의 왕위계승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402년 봄 2월에 내물왕이 죽고 그 아들들은 왕위계승에서 배제되었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실성왕 즉위 조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3)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중세 왜인의 세계』, 小花, 1995, 51쪽.

4) 정순일, 『『속일본후기』所收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嶋嶼之人’』, 『日本歴史研究』 37, 2013, 143~147쪽.

내물이 별세하였으나 그의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성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였다(<奈勿>薨, 其子幼少, 國人立<實聖>繼位).

실성 즉위 원년 왜국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奈勿王子 未斯欣을 인질로 삼아 왜국으로 보냈다(元年, 三月, 與<倭>國通好, 以<奈勿王>子<未斯欣>爲質).

내물왕은 357년에 즉위했다. 하지만 그가 미추왕녀인 保反夫人에게 장가들었던 것은 상당히 세월이 흐른 후였던 것 같다. 402년 내물왕이 사망할 때 보반부인이 낳은 訥祗-未斯欣-복호 삼형제는 왕위를 잇지 못할 정도의 어린 나이였다. 실성이 즉위한 바로 한 달 후 왜국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실성은 사망한 내물왕의 아들 未斯欣을 왜국에 인질을 보냈다. 하지만 신라에 대한 왜국의 침공은 지속되었다.

4년(405) 여름 4월, 왜병이 명활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왕이 기병을 거느리고 독산 남쪽에서 요격하였으며, 다시 싸워 그들을 격파하고 3백여 명을 죽였다(四年, 夏四月,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歸, 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6년(407) 봄 3월에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략하고, 여름 6월에 다시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1백 명을 잡아갔다(六年, 春三月, 倭人侵東邊, 夏六月, 又侵南邊, 奪掠一百人).

7년(408) 봄 2월, 왕은, 왜인이 대마도에 병영을 설치하고 병기와 군량을 저축하여 우리나라를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공격해오기 전에 먼저 정병을 뽑아 그들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서불한 미사품이 말했다. “저는 ‘병기란 흙물스런 도구요, 전쟁이란 위험한 일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황차 큰 바다를 건너 타국을 공

격하는 것이야말로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니, 차라리 험난한 지형을 찾아 요새를 설치하였다가, 적이 올 때 이를 막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때 나가서 사로잡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내가 남을 끌어 당길지언정 남에게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니 책략 중에는 상책입니다.” 왕이 이 의견을 따랐다.⁵⁾

14년(415) 가을 7월, 왕이 혈성 별에서 크게 군대를 사열하고, 또한 금성 남문에 행차하여 활쏘기를 관람하였다. 8월, 왜인과 풍도에서 싸워 승리하였다.⁶⁾

일찍이 千寬宇 선생은 실성왕이 왜에 인질을 보냈지만 신라에 대한 왜의 침공이 지속된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본열도 내에 다수의 왜가 있었고, 신라가 인질을 보낸 왜와 침공한 왜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408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對馬島가 倭寇의 소굴이었다. 또한 『삼국사기』 박제상전을 보면 왜는 신라를 침공할 때 對馬島를 기지로 이용했다. 신라가 인질을 보낸 왜와 신라를 침공한 왜가 다르다고 속단 할 수는 없다.

未斯欣이 인질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죽은 내물왕의 아들이지 실성의 아들은 아니었다. 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는 신라 실성왕을 협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없었다.⁷⁾

5) 『삼국사기』 권3, 실성이사금 7년 2월, “七年春二月 王聞倭人於對馬島置營貯以兵革資糧以謀襲我我欲先其未發揀精兵擊破兵儲舒弗那未斯品曰臣聞兵凶器戰危事況涉巨浸以伐人萬一失利則悔不可追不若依險設關來則禦之使不得侵猾便則出而禽之此所謂致人而不致於人策之上也王從之.”

6) 『삼국사기』 권3, 실성이사금 14년 7월, “十四年秋七月 大闢於穴城原又御金城南門觀射八月與倭人戰於風島克之.”

7)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현재 계명대 윤진석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그에 구두지적

실성왕이 訥祗의 동생인 未斯欣·卜好를 왜와 고구려에 인질로 보낸 것은 왕위계승 경쟁자를 외국으로 추방한 것이었다. 실성왕은 신라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訥祗를 제거하려고 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전한다.

내물왕 37년에 실성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냈는데, 실성이 돌아와 왕이 되고나서 내물이 자기를 외국에 인질로 보낸 것을 원망하였다. 그는 내물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 고구려에 있을 때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불러와 은밀히 그에게 “訥祗를 보거든 죽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訥祗를 가게하여 도중에서 그와 마주치도록 하였다. 고구려 사람이 訥祗를 보니 외모가 쾌활하고 정신이 고상하여 군자의 기풍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그대의 국왕이 나로 하여금 그대를 죽이도록 하였으나 이제 그대를 보니 차마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訥祗가 이를 원망하여 도리어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⁸⁾

392년 내물왕은 실성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낸 바 있다. 여기에 원한을 품었던 실성이 402년 즉위한 후 未斯欣과 복호를 왜국과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訥祗마저 암살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訥祗가 이를 알아차리고 반격을 가해 실성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러한 유흥정변에 고구려가 개입했다는 설이 일찍부터 있었다.⁹⁾ 訥祗는 즉위와

에 의하면 실성왕이 왜국에 보낸 未斯欣은 이미 인질로서 가치를 상실한 ‘空質’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여 402년 訥祗가 즉위한 이후 第 未斯欣은 ‘實質’이 되었다고 한다.

8) 『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즉위년, “奈勿王三十七年 以實聖質於高句麗 及實聖還爲王 怨奈勿質已於外國 欲害其子以報怨 遣人招在高句麗時相知人 因密告 見訥祗則殺之 遂令訥祗往 逆於中路 麗人見訥祗 形神爽雅 有君子之風 遂告曰 爾國王使我害君 今見君 不忍賊害 乃歸訥祗 怨之 反弑王自立.”

9) 末松保和, 앞의 책, 82쪽.

동시에 왜국과 고구려에 보낸 자신의 동생들을 구출하려고 하였다. 동생에 대한 혈육의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전히 그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18년 정월에 박제상이 복호를 고구려에서 구출하여왔고, 동시에 未斯欣을 구출하기 위해 왜국으로 떠났다.

이에 왜는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를 습격하기로 하고, 제상과 미사흔을 장수 겸 향도로 삼았다. 행렬이 바다에 있는 산으로 된 섬에 이르자 왜의 여러 장수들이, 신라를 멸한 뒤에는 제상과 미사흔의 처자를 잡아 오자고 은밀히 의논하였다. 제상이 이를 알고 미사흔과 함께 배를 타고 놀면서 마치 물고기와 오리를 잡는 것 같이 행동하니, 왜인들은 이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고 좋아하였다. 이 때 제상이 미사흔에게 슬며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미사흔은 “내가 장군을 아버지처럼 받들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돌아가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제상이 말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떠난다면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미사흔은 제상의 목을 안고 울면서 하직하고 돌아왔다. 제상은 방안에서 혼자 자다가 늦게야 일어났다. 이는 미사흔으로 하여금 멀리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장군은 왜 늦게 일어나느냐”고 물으니, 제상은 “전 날 배를 탔더니 피곤하여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왜인들은 마침내 미사흔이 도망간 것을 알고 제상을 결박해 놓은 채 배를 풀어 추격하였다. 때마침 안개가 대단히 짙게 끼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¹⁰⁾

未斯欣은 실성왕이 피살된 후 가치 있는 인질이 되었다. 새로 즉위

10) 『삼국사기』 권45, 박제상전, “歸堤上於王所 則流於木島 未幾 使人以薪火燒關支體 然後 斬之 大王聞之哀慟 追贈大阿漚 厚賜其家 使未斯欣 娶其堤上之第二女爲妻 以報之 初未斯欣之來也 命六部遠迎之 及見 握手相泣 會兄弟置酒極娛 王自作歌舞 以宣其意 今 鄉樂憂息曲 是也.”

한 신라왕 訥祗의 동생인 그는 보통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적을 협박하여 움직임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만 볼 수 없다. 왜왕은 인질인 그를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신라를 침략할 기회가 온다면 대군을 이끌고 訥祗王의 동생을 앞세워 신라로 쳐들어가겠다고 생각했다.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제상이 신라에서 오자 왜국왕은 신라를 칠 기회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未斯欣과 박제상의 가족을 신라왕이 감금했다는 소식을 들은 왜왕은 신라가 내분에 휩싸였다고 간주하고 정벌군을 꾸리고 박제상과 未斯欣을 향도로 삼았던 것이다. 신라궁정 안에는 王弟 未斯欣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동생이 왜왕의 손아귀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訥祗王에게는 부담이었다.

그러나 왜왕이 未斯欣을 嚮導로 삼아야 그가 신라로 탈출하기 쉬운 對馬島로 갈 수 있다. 위의 기록에서 왜군의 행렬이 바다에 있는 산으로 된 섬(對馬島)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다. 訥祗王과 박제상은 왜왕이 未斯欣에 대해 품고 있는 그 기대감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던 것 같다.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攝政 5年 春3月 癸卯朔 己酉 조에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다.

新羅王이 汗禮斯伐 · 毛麻利叱智와 富羅母智 등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전에 質로 와 있었던 微叱許智伐를 돌려보낼 생각이 있었다. 許智伐를 유혹하여 다음과 같이 속여 말하게 했다. 使者 汗禮斯伐. 毛麻利叱智 등이 고하여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왕이 제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처자를 모두 종으로 삼았다고 하니. 바라건 데 잠시 본토(還本土)로 가서 그 사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태후가 청을 들어주었다. 葛城襲津彦을 붙여서 파견하였다. 함께 對馬에 도착하여 鋤海水門에 숙박하였다. 그때 新羅使者 毛

麻利叱智 등이 船와 水手를 훔쳐 나누어 주어 微叱早岐를 데워 新羅로 도망하게 하였다. 그리고 풀을 묶어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微叱許智의 자리에 두게 하고, 病者인체 하고 襲津彦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微叱許智지가 병에 걸려 죽으려 한다고 하였다. 襲津彦이 사람을 보내 病者를 돌보게 하였는데 속인 것을 알고 新羅使者 3人を 붙잡아서 우리 속에 넣고 불데워 죽였다. 그리고 新羅로 가서 踏鞴津에 있는 草羅城을 뺏고 돌아왔는데 이때 잡아온 사람들이 今桑原. 佐糜. 高宮. 忍海. 凡4邑의 漢人等の 始祖이다.¹¹⁾

위의 기록은 박제상 이야기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원형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야기의 흐름도 간결하고 자연스럽고, 기승전결이 확실하다.

신라왕이 파견한 3명의 사신 汗禮斯伐 · 毛麻利叱智 · 富羅母智 가운데 모마리질지는 『삼국사기』 권45, 박제상전에 그의 이칭으로 나온다. “朴堤上[或云毛末]”라고 하여 毛麻利叱智는 毛末, 즉 박제상이 확실하다. 微叱許智伐旱(みしつきよちバツカン)은 『삼국유사』(기이1) 내물왕과 김제상 조에 보이는 美海(みかい, うみ)로서 『삼국사기』에 보이는 未斯欣(み(び)しきん)이다.

어떻게 해서 위의 기록이 『日本書紀』神功皇后攝政期에 실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과 시기 자체는 신라 訥祗王 즉위 직후인 417-8년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攝政 5年 春3月 癸卯朔 己酉, “新羅王遣汗禮斯伐 毛麻利叱智 富羅母智等朝貢 仍有返先質微叱許智伐旱之情 是以誑許智伐旱而給之曰 使者汗禮斯伐 毛麻利叱智等告臣曰 我王以坐臣久不還而悉沒妻子爲孥 冀 還本土 知虛實而請焉 皇太后則聽之 因以副葛城襲津彦而遣之 共到對馬宿于鋤海水門 時新羅使者毛麻利叱智等 竊分船及水手 載微叱早岐令逃於新羅 乃造菑靈置微叱許智之床 詳爲病者 告襲津彦曰 微叱許智忽病之將死 襲津彦使人 令看病者 既知欺而捉新羅使者三人 納檻中以火焚而殺 乃詣新羅 次于踏鞴津 拔草羅城還之 是時俘人等 今桑原 佐糜 高宮 忍海 凡四邑漢人等之始祖也.”

未斯欣(微叱許智伐旱)이 왜왕에게 말했다. 使者 汗禮斯伐。毛麻利叱智 등이 신에게 말하기를 신라왕이 제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처자를 모두 종으로 삼았다고 하니 바라건 데 잠시 본토로 돌아가서(還本土) 그 사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왕은 未斯欣이 襲津彦과 그가 이끄는 왜군들과 함께 신라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을 구출하려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未斯欣이 탈출을 해버리고 신라사절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 내용은 『삼국사기』 朴堤上傳과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毛麻利叱智(박제상) 등이 배(船)와 水手(강구려)를 몰래 주어 微叱旱岐(未斯欣)을 新羅로 도망하게 하였다는 ‘핵심’내용은 같다.¹²⁾

같은 사건이 韓日兩國의 古代記錄에 나란히 실려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확히 말해 신라 왕자 未斯欣을 왜국에서 탈출시킨 朴堤上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는 신라와 왜국 당사국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물론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다시 『삼국사기』 권45, 박제상전을 보자.

제상이 대답하였다. “신이 비록 재주가 노둔하오나 이미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끝까지 명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대국이고 왕도 역시 어진 임금이었기 때문에 신이 한 마디 말로써 그를 깨우칠 수 있었지만, 왜인들은 말로써 달랠 수 없으니 속임수로써 왕자를 돌아오게 해야합니다. 신이 저 곳에 가거든, 신이 반역하였다는 죄를 씌우고, 이 소식이 저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소서.” 제상은 이

12) 『일본서기』에는 다른 곳에 없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 襲津彦이 왜군을 거느리고 新羅 踏鞬津으로 쳐들어가서 草羅城을 함락시키고, 桑原, 佐糜, 高宮, 忍海, 凡4군의 漢人等の 始祖인 사람들을 잡아 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왜침의 목적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에 죽기를 맹세하고 처자도 만나지 않은 채 울포로 가서 배를 타고 왜로 향하였다. 그의 아내가 이 소문을 듣고 포구로 달려가 배를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잘 다녀 오시오!” 제상이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명을 받들고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대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 라 하고, 드디어 그길로 곧장 왜국에 들어갔다. 그는 마치 모반하다가 그곳에 온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왜왕이 그를 의심하였다. 그런데 그보다 얼마 전에 백제인이 왜국에 가서 ‘신라와 고구려가 모의하여 왕의 나라를 침공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왜국에서는 군사를 보내 신라 국경 밖에서 엿탐하게 하였다. 그 때 마침 고구려가 침입하여 왜의 엿탐꾼을 모두 잡아 죽였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왜왕은 백제인의 말을 사실로 여겼으며, 또한 신라왕이 미사흔과 제상의 가족을 가두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제상이 정말 배반자라고 믿게 되었다.¹³⁾

위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박제상이 訥祗王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반역의 죄를 씌우게 하고 그 소식이 왜왕의 귀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또한 왜왕은 신라왕이 미사흔·박제상 가족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제상을 망명자로 믿게 되었던 것이다.

박제상의 왜국 이야기의 무대는 對馬島와 九州였고, 신라와 왜국 사이의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와 물자를 가지고 오가든 통로였다. 신라와 왜국 사이의 바다의 섬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담당자였

13) 『삼국사기』 권45, 박제상전, “堤上報曰 臣雖奴才 既以身許國 終不辱命 然高句麗大國王亦賢君 是故 臣得以一言悟之 若倭人 不可以口舌諭 當以詐謀 可使王子歸來 臣適彼 則請以背國論使彼聞之 乃以死自誓 不見妻子 抵(祗)栗浦 汎舟向倭 其妻聞之 奔至浦口 望舟大哭曰 好歸來 堤上回顧曰 我將命入敵國 爾莫作再見期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 百濟人 前入倭 讒言 新羅與高句麗謀侵王國 倭遂遣兵 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并擒殺倭羅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 又聞羅王囚未斯欣 堤上之家人 謂堤上實叛者.”

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이 『삼국유사』 기이1 내물왕과 김제상 조에 보인다.

그는 왜국에 도착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계림왕이 아무런 죄도 없이 제 부형을 죽였으므로 도망을 하여 온 것입니다.” 왜왕은 이 말을 믿고 제상에게 집을 주어 편안히 거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제상은 늘 미해를 모시고 해변에 나가 놀았다.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잡아서 왜왕에게 바쳤다. 왜왕은 매우 기뻐하여 조금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제상이 미해에게 말했다. “지금 빨리 떠나십시오.” “같이 갑시다.” 하고 말했으나 제상은 “신이 만일 같이 떠난다면 왜선들이 뒤를 쫓을까 염려가 됩니다. 신은 이 곳에 남아서 뒤를 쫓는 것을 막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지금 나는 그대를 부형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돌아가겠소.” 제상이 말하기를 “신은 공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써 왕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는 술을 따라 미해에게 드렸다.

이때 계림 사람 康仇麗가 왜국에 와 있었는데 그를 미해에게 팔려 호송을 하게 하였다.

미해를 떠나보내고 제상은 미해의 방에 들어가서 이튿날 아침까지 있었다. 미해를 모시는 사람들이 방에 들어와 보려 하였으나 제상이 와서 말하기를 “미해공이 어제 사냥하는데 쫓아다니느라고 몹시 피로해서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자 좌우의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다시 물었다. 이 때야 제상이 말을 하였다. “미해공은 떠난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좌우의 사람들이 왜왕에게 달려가 이를 고했다. 왕이 기병을 시켜 그 뒤를 쫓게 하였으나 결코 따라가지 못하였다. …략…14)

14) 『삼국유사』 기이1, 내물왕과 김제상조, “堤上但搖手而不駐 行至倭國 詐言曰 雞林王以不罪殺我父兄 故逃來至此矣 倭王信之 賜室家而安碑 時堤上常陪美海遊 衆 逐捕魚鳥 以其所誰能每人倭王 王甚喜之而無疑焉 適曉霧濛晦 堤上曰 可行矣 美海曰 然

왜왕은 제상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목도라는 섬에서 불에 태워 죽였다.

미해는 바다를 건너와서 먼저 康仇麗를 시켜 나라 안에 사실을 알렸다. 訥祗王은 놀라고 기뻐서 백관들에게 명하여 屈歇驛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왕은 아우 보해와 더 붙어 남교에 가서 맞이하였다. 대궐로 맞아 잔치를 베풀고 국내에 대사령을 내리어 죄수를 풀어 주었다. 제상이 아내를 국대부인으로 봉하고 그의 딸로서 미해공의 부인으로 삼았다. …략… 15)

제상은 왜왕 의심을 거두자 未斯欣(美海)를 탈출 시키려 한다. 같이 탈출하자는 未斯欣의 애절한 요청을 물리친 제상은 康仇麗 등 사공집단이 조종하는 배에 왕자를 밀어 넣었다. 제상은 숙소에 누어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결국 발각이 되었고, 너무나 비참하고 희생적인 죽음을 당했다.

未斯欣이 탄 배는 對馬島와 가장 가까운 現 부산 쪽으로 향했으리라. 바다를 건넌 未斯欣은 康仇麗를 보내 신라왕실에 소식을 알렸다. 형 訥祗王은 백관들을 시켜 현재 울산으로 보이는 屈歇驛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삼국유사』 기이1 내물왕과 김제상 조는 未斯欣을 對馬島에서 신라로 데리고 간 康仇麗 대표되는 사공 집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원형을 전한다고 할 수 있는 『일본서기』 신공황후기에 水手 집단

則偕行 堤上曰 臣若行 恐倭人覺而追之 願臣留而止其追也 美海曰 今我與汝如父兄焉 何得棄汝而獨歸 堤上曰 臣能救公之命 而慰大王之情則足矣 何願生行 取酒獻美海 時雞林人康仇麗在倭國 以其人從而送之 堤上入美海房 至於明映 而左右欲入來堤上出止 鄰兵昨日馳走於捕獵 病甚未起 及眺考戾 而左右怪之而更問焉 對曰 美海行已久矣 左右奔告 誰能王使騎兵逐之不及。”

- 15) 『삼국유사』 기이1, 내물왕과 김제상조, “倭王知不可昔我燒殺於木島中 美海渡海不爲倭使康仇麗先告國中 王驚喜 命百官迎於屈歇驛 王與親弟寶海迎於南郊爲倭國開設宴 大赦國內 冊其妻前受大夫人 以其女子爲美海公夫人.”

이 바로 그들이다. 水手들은 對馬島와 맞은편 부산에 이르는 바닷길에 능한 사람으로 양측을 그 전부터 오고갔던 境界人이었을 것이다.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對馬島 조에 그들의 존재가 보인다.

“...좋은 농토가 없고, 해산물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배를 타고 남북으로 돌아다니며 교역하고 있다.”¹⁶⁾

배를 타고 남북 시장으로 돌아다니며 교역하여 쌀을 사들이는(乘船南北市糴) 3세기 對馬島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남은 九州지방 북은 부산-김해지방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쪽의 新羅語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九州에서 사용하는 倭語도 일정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유사』에 보이는 강구려는 신라조정에 탈출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에 원주지를 두고 현해탄을 오가던 경계인일 수도 있다. 시대를 달리하지만 그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1494) 5월 병오 조를 보자.

…김해(金海) 북면(北面)의 연해(沿海)에 머물며 살고 있는 선군(船軍)이 무려 6백여 호(戶)인데, 그 풍속은 젊어서부터 농업(農業)을 일삼지 않고 배를 집으로 삼아 바다에 드나들면서 배를 조종하는 것이 민첩하여 섬 오랑캐[島夷(對馬島人)]와 다름이 없는데, …¹⁷⁾

부산 서쪽인 김해에는 600여 호나 되는 船軍의 촌락이 있었다. 나라

16) 『三國志』 魏志 倭人傳 對馬島, “始度一海千餘里 至對馬國 其大官曰卑狗 副曰卑奴 母離 所居絕島 方可四百餘里 土地山險 多深林 道路如禽鹿徑 有千餘戶 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糴.”

17) 『성종실록』 권290, 성종 25년 5월 19일 병오, “金海北面沿海住坐船軍 無慮六百餘戶 其俗自少不事農業 以船爲家 出入海洋 操舟便捷 無異島夷.”

의 水軍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태는 배를 집으로 삼는 해민집단으로 배 조종에 능숙한 그 습속은 島夷(對馬島人)와 다를 바가 없었다. 관련하여 『성종실록』 성종 8년(1477) 8월 기해 조가 주목된다.

경상도의 사천과 固城·진주 지방에 제주의 豆禿也只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2,3척의 배를 가지고 왕래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 의복은 倭人과 같으나, 언어는 倭語가 아니고 漢語도 아니며, 船體는 왜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더한데, 항상 고기를 낚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業을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郡縣에서도 力役을 과하지 못했습니다.18) ...략...

경계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의복은 倭人과 같으나, 언어는 倭語가 아니고 漢語도 아니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임시로 거처를 짓고, 어업만을 하기 때문에 力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 국가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19) 이러한 境界人의 존재는 한일양국에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했고, 국가가 형성된 이후 大航海時代 직후까지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에 국가가 형성된 후 신라 왜국 兩國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서로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8)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 8월 5일 기해, “使曰 今有人來言 道內泗川 固城 晋州地面 濟州 豆禿也只稱名人 初將二三船出來 今轉爲三十二隻 依岸爲廬 衣服混於倭人 言語非倭非漢 船體視倭尤牢實 而迅疾則過之 恒以釣魚採藿爲業 郡縣亦不能役 近處居民皆以爲掠我國人者疑是此徒 然是言未可盡信 亦不可謂虛妄也 今欲刷出 恐急之則彼輩胥動走入海洋之中 變將不測 是不可不慮也 卿其諗守令.”

19)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앞의 책, 1995, 52쪽.



Ⅲ. 磐井亂과 新羅海邊人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1年(527) 9月조를 보면 신라가 九州 磐井세력과 정치적 거래를 한 기록이 보인다.

近江毛野臣 6萬의 병력을 이끌고 任那에 가서 新羅에게 所破 당한 南加羅와 喙己吞을 다시 세워 任那에 합하고자 하였다. 이때 筑紫國造 磐井가 반역을 도모하였는데 꾸무리다가 해를 넘겼다. 일을 이루기가 어려울까봐 늘 틈을 엿보았는데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磐井에게 몰래 貨賂(벼물)를 보내 毛野臣軍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③ 磐井가 火豊二國에 세력을 뻗쳐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밖으로 海路를 끊어 高麗와 百濟 그리고 新羅와 任那 등 나라에서 해마다

바치는 배를 띄워서 이르게 하고, 안으로는 任那에 과전되는 毛野臣軍을 막고 무례하게 말하기를 ‘지금 사자가 된 사람(毛野臣)은 나의 동료로서 어깨를 맞대고 팔꿈치를 부딪치며 같은 그릇에 밥을 함께 먹던 자다. 어찌 별안간 사신이 되어 나(磐井이)로 하여금 스스로 옆드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毛野臣은 길이 막혀서 중도에 지체했다. 天皇은 大伴大連金村。物部大連麤鹿火。許勢大臣男人 等에게 말하기를 ‘筑紫國 磐井가 반란을 일으켜 西戎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누가 장수가 될 만한가?’ 라고 조칙을 내렸다. 大伴大連 등이 모두 正直하고 어질고 용감하며 兵事에 통한 것은 지금 麤鹿火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천황이 ‘좋다’ 라고 하였다.²⁰⁾

527년 이전 어느 시기에 新羅가 南加羅와 喙己呑을 공격하여 破했다. 畿內 왜조정 近江毛野臣 6萬의 병력을 이끌고 가야지역에 가서 신라가 차지한 南加羅와 喙己呑을 재건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畿內 왜정정이 그들이 한반도 교역 창구인인 가야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近江毛野臣이 畿內에서 九州에 도착했을 때 6萬의 병력을 대동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를 막아선 磐井를 곧바로 공격했을 것이다. 磐井의 차단으로 近江毛野臣이 가야 지역에 가지 못하자 畿內 조정에서 군대를 다시 일으키는 데서도 이는 짐작이 간다.

신라가 가야 지역의 南加羅와 喙己呑을 병합하여 자신의 영토로 삼

20)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21年 9月, “近江毛野臣率衆六萬 欲往任那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 喙己呑而合任那 於是筑紫國造磐井陰謀叛逆 猶豫經年 恐事難成 恒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臣軍 於是磐井掩據火豐二國 勿使修職 外逢海路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職船 內遮遣任那毛野臣軍 亂語揚言曰 今爲使者 昔爲吾伴 摩肩觸肘共器同食 安得率爾爲使 俾余自伏爾前 遂戰而不受驕而自矜 是以毛野臣乃見防遏中途淹滯 天皇詔大伴大連金村 物部大連麤鹿火 許勢大臣 男人等曰 筑紫磐井反掩 有西戎之地 今誰可將者 大伴大連等僉曰 正直仁勇通於兵事 今無出於麤鹿火右 天皇曰可.”

있던 시기는 아마도 522년 직후가 아닌가 한다. 그해 대가야와 신라가 결혼동맹이 이루어졌고,²¹⁾ 524년 신라왕이 가야지역에 확장한 영토를 순행하여 대가야왕을 만났다.²²⁾ 527년에 가서畿内の 왜가 신라의 가야 지역잠식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자 신라는九州 磐井에게 貨賂를 뇌물로 주어畿内 왜의 의도를 무산시키려 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일본열도 내의 내전으로 비화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다.

신라가九州 磐井에게 貨賂(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527년 이전부터九州 筑紫國의 磐井와 관계를 맺어왔고,九州와畿内와의 갈등 요소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

磐井는九州 筑紫國에서 누대로 권력을 누려온 지방호족이었다. 磐井의 墓로 推定되는 岩戶山古墳은 당시의 大王墓에도 필적하는 규모이며, 또한 출토된 石製品群은 北部九州의 그것 가운데서도 他古墳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로서 磐井의 勢力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²³⁾ 그 石製品群의 분포현황에서 추측되는 세력범위는 北으로 玄界灘、南으로는 有明海에 이르는 筑紫君을 중심으로 「筑紫政權」이라고 불릴 정도의 연합정권을 형성했다고 한다.²⁴⁾

『筑後國風土記』 逸文(『釋日本紀』 所引)에 의하면 上妻縣(現在 福岡縣 八女郡 東北部) 役所南 2리에 磐井의 무덤이 있는데 古老의 伝한 巴雄大迹天皇(繼体天皇 507년 즉위) 시절부터 磐井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생전에 묘를 만들었다고 한다.²⁵⁾

21) 『삼국사기』 권4, 법흥왕 9년(522)조.

22) 『삼국사기』 권4, 법흥왕 11년(524)조.

23) 大塚恵治, 「岩戶山古墳と筑紫の政權」, 『古代王權と古墳の謎』(歴史讀本 2015年1月号) 2014, 104~107쪽.

24) 『角川日本地名大辭典』 40(福岡縣), 角川書店, 1988, 31쪽.

25) 『筑後國風土記』 逸文(『釋日本紀』 卷13所引), “筑後國風土記曰 上妻縣 々南二里有 筑紫君磐井之墓墳 高七丈 周六十丈 墓田南北各六十丈 東西各●丈 石人石盾各六十枚 交陣成行 周匝四面 當東北角 有一別區 號曰衙頭 衙頭政所也 其中有一石人 縱容立地號曰解部 前有一人 形伏地 號曰儷人 生爲儷猪 仍擬決罪 側有石猪四頭 號賊

今城塚古墳(大阪府高槻市)를 시작으로 하는 畿内古墳의 石棺部材에九州 阿蘇山 지역의 핑크색(ピンク) 石材가 보이는데, 이는九州에서 西日本・畿内로의 文化를 波及하는 유력한 세력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阿蘇핑크石의 畿内流入은 530年 경에 가서야 중단되었다. 磐井 세력의 멸망시기와 일치한다.²⁶⁾

磐井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자로 온 毛野臣은 그의 동료로서 어깨를 맞대고 팔꿈치를 부딪치며 같은 그릇에 밥을 함께 먹던 동료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磐井가 젊었을 때 畿内 大和王權에 出仕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磐井집안은九州를 대표하여 畿内の 大和 교류하고 있었다. 畿内王權에서 磐井세력은 간과 할 수 없는九州勢力이었다.²⁷⁾

꾸물거리다가 해를 넘겼다든지, 일을 이루기가 어려울까봐 늘 틈을 엿 보았다는 표현에서 그것을 알 수 있듯이 磐井이 반란에 뜻을 품은 것은 오래전인 것 같다. 그것을 간파한 신라가 원조를 하자 磐井이 畿内와 전쟁을 결정 했던 것으로 보인다. 磐井는 火國(肥前國・肥後國)과 豊國(豊前國・豊後國)을 억압하여 海路를 차단하고, 高句麗・百濟・新羅・任那의 朝貢船을 자신의 쪽으로 유치하였다.

(528년 11월) 大將軍 物部大連麤鹿火가 친히 賊帥인 磐井과 筑紫國 御井郡에서 교전하였다. 서로 바라보고 깃발을 들고 북을 울렸다. 티끌이 상접하였다. 決機가 兩陣之間에 터졌고, 죽음을 서로 피하지 않은 땅이 되었다. 결국 磐井을 斬하였고, 그 결과 경계를 정하

物賊物盜 物也 彼處亦有石馬三疋 石殿三間 石藏二間 古老傳云 當雄大迹 天皇之世 筑紫君磐井 豪強暴虐 不假皇風 生平之時 預造此墓 俄而官軍動發 欲襲之間 知勢不勝 獨自遁于豊前國上膳縣 終于南山峻嶺之曲 於是 官軍追尋失蹤 士怒未泄 擊折石人之手 打墮石馬之頭 古老傳云 上妻縣 多有篤疾 蓋由●歟”

- 26) 柳澤一男, 『筑紫君磐井と‘磐井の亂’-岩戸山古墳』, 新泉社, 2014, 60~72쪽. 水谷千秋, 『継体天皇の戦い』, 『争亂の古代史 古代日本國家成立への戦い』, 2015, 76~83쪽.
27) 柳澤一男, 吉川弘文館, 위의 논문. 水谷千秋, 위의 논문.

었다.²⁸⁾

<國造本紀> 伊吉嶋(壹岐섬)造 조에 磐余玉穗朝(계체천황 때) 石井(이와이)의 從者인 新羅海邊人들을 토벌한 天津水凝의 후예인 上毛布가 直造되었다.²⁹⁾

위의 『日本書紀』 자료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도 있겠다. 528년 11월 九州 筑紫國 御井郡에서 畿內 조정의 大將軍 物部大連麤鹿火와 九州의 磐井의 군대가 대진했다. 이윽고 북소리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군은 깃발을 들고 서로를 향해 전진했다. 죽음의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양군이 서로 뒤엉켜 죽이는 지옥의 모습이 연출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畿內朝廷과 九州 磐井정권이 한반도에 대한 교역권을 두고 갈등을 일으켰고, 내전으로 치달았다고 할 수 있다.³⁰⁾ 치열한 결전 끝에 磐井은 패배하여 죽었고, 九州는 畿內的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래의 <國造本紀> 壹岐섬 造에 繼體期에 磐井의 從者인 新羅海邊人들을 토벌한 上毛布直(天津水凝 후예)가 造가 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신라가 磐井에게 인력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석은 <國造本紀> 壹岐섬 造에 新羅海邊人 등장의 의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양국의 중요해상 루트 상에 입지하고 있는 이키 섬에서 新羅海邊人들을 죽였다는 것이 정

28)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2年(528) 11月 甲子, “大將軍物部大連麤鹿火親與賊帥 磐井交戰於筑紫御井郡 旗鼓相望 埃塵相接 決機兩陣之間不避萬死之地 遂斬磐井 果定樞場.”

29) 『國造本紀』 “伊吉嶋造條 磐余玉穗朝 伐石井從者新羅海邊人 天津水凝後上毛布直造.” 『국조본기』는 9세기에 편찬된 『先代舊事本紀』의 뒷부분의 10卷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한다.

30) 水谷千秋, 『繼體天皇と朝鮮半島の謎』(文春新書925), 文藝春秋, 2013, 196쪽.

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磐井의 종자이기도 한 사람들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豊前の 上臈(=上毛) 지역 출신인 上毛布直으로 하여금 이키 지역 최고 지배자가 되게 하였다. <國造本紀>가 만들어지는 후대에까지 이 일이 기억되었다. 그것은 磐井이 신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磐井의 종자이기도 한 新羅海邊人들은 그와 신라 양자의 유대관계를 매개했을 것이다.³¹⁾

畿内 조정의 군대와 磐井의 군대가 결전을 벌인 戰場은 福岡縣 御井郡으로 현재 久留米市の 一部이다. 현해탄 기준에서 본다면 상당히 내륙으로 들어가 있다.

御井郡에서 패전 후 磐井의 從者인 新羅海邊人들은 무조건 탈출해야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생포된다면 磐井의 핵심세력이었던 그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磐井의 어느 다른 九州人 부하들 보다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집단이었을 것이다.

新羅海邊人들은 磐井의 從者로서 전투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 생존자들이 壹岐島에 도착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장이었던 御井郡에서 博다가 아니라 거리상 가까운 佐賀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현재의 가라쓰(唐津)로 향했을 것이다. 唐津에서 탈출 배를 탄 그들은 카가라시마(加唐島)를 바라보면서 壹岐島에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 탈출에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바람의 방향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인지 꼬리가 잡혔고, 新羅海邊人들은 壹岐島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나 磐井亂 그 자체로서 신라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 신라는 畿内に 반감을 품고 있던 磐井을 부추겨 고대 일본에서 최대의 내란을

31) 이재석, 「6세기 초 筑紫國 磐井亂과 신라」, 『新羅史學報』 25, 2013, 55~56쪽·61~64쪽.

일으켰다. 가야 지역을 잠식해 가던 시기 신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磐井亂이라는 대외 공작을 단행했고, 여기에 新羅海邊人을 적극 ‘이용’ 했던 것이다.

물론 新羅海邊人들도 그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이전부터 磐井와 긴밀한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에게 가담할 만큼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磐井의 從者로 측근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신라 국가도 新羅海邊人 의지를 수렴하고 이익을 주면서 활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IV. 對馬島의 新羅間諜과 九州의 新羅奴

『日本書紀』卷2, 推古天皇 9년(601) 가을 9월 조를 보면 對馬島에서 체포된 신라간첩을 왜 조정이 上野로 유배시켰다고 한다.

“辛巳 朔 戊子에 신라의 간첩 迦摩다가 對馬島(對馬)에 도착하였으므로 잡아서 바쳤다. 그래서 迦摩多를 上野에 유배했다.”³²⁾

『일본서기』에서 보이는 半島出身者の 東國, 上野로의 流配移住 기록이다. 이와는 별도로 1명이 체포되었지만 왜국에서 활동했던 신라첩자는 그 이상이라 볼 수도 있다. 연민수는 601년 9월 신라 간첩이 對馬島에서 체포되면서 왜 왕권은 즉시 긴장 상태에 들어갔으며, 그해 11월 신라 침공을 논의하고 이듬해는 신라 정토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北九

32)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9年(601) 秋9月 辛巳朔戊子, “新羅之間諜者迦摩多到對馬 則捕以貢之 流于上野.”

州에 來目皇子를 장군으로 하는 2만 5천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신라와 긴장 관계 표출이며 대외 관문인 北九州에 대한 경비 태세로 군사 시설의 점검이었다고 보았다.³³⁾

왜국이 침공의 움직임이 보이자 신라가 정보 수집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推古 9年 3月)大伴連嚙를 高麗에 坂本臣糠手を 百濟에 倂견하여 任那를 급히 구원하라고 했다.³⁴⁾

601년 3월 왜는 大伴連嚙를 고구려에, 坂本臣糠手を 백제에 倂견해 임나를 구원하라고 독촉했다. 왜가 백제와 고구려에 명령하는 것과 같은 낚임수사이다. 이 기록은 『日本書紀』 특유의 어법이다. 8세기 초반의 율령적 이데올로기로 가필. 운색이 가해진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7세기의 『일본서기』 기록은 상당히 정확해졌다.

山尾幸久는 왜의 축구로 백제와 고구려의 군대가 움직였다고 보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2년 조에 (602년) 백제의 아막성 공격과 같은 책 진평왕 조에 (603년) 고구려의 신라북한산성 공격은 왜의 축구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했다. 신라에 대해 왜-고구려-백제 삼국은 공동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⁵⁾

601년 3월 각각 고구려와 백제로 향했던 사절 遣고구려사 大伴連嚙와 遣백제사 坂本臣糠手는 백제에서 만나 1년 3개월 만에 왜국으로 귀국했다.³⁶⁾ 고구려로 간 왜사 大伴連嚙은 귀국시 평양에서 남쪽 백제로

33) 延敏朱, 『新羅의 對倭外交와 金春秋』, 『新羅文化』 37, 2011, 4쪽.

34)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9年(601)3月, “遣大伴連嚙于高麗遣坂本臣糠手于百濟以詔之曰 急救任那.”

35)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 229, 1967, 28쪽.

36)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6月 己酉, “大伴連嚙 坂本臣糠手 共至自百濟.”

향했다. 고구려에서 백제의 국경을 넘어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견고구려사의 백제방문은 왜 왕권의 대 고구려 접촉 내용을 백제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왜왕의 특명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고구려-백제-왜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신라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었다. 왜국에서 신라 침공을 위한 준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신라는 간첩들을 현해탄 도서지역에 적극적으로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들 중 한명이 對馬島에서 체포되었던 것이다. 간첩의 이름은 迦摩多였다. 발음으로 가마다를 일본식으로 漢子化 시키면 釜田이 된다. 그 명칭으로 볼 때 그는 틀림없는 倭人 이름을 가진 境界人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迦摩多是 신라에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지만, 그를 新羅人인가 倭人인가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후대의 사실이지만 다음 사실은 그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1441년 왜인 사이문구라(沙伊文仇羅=左衛門九郎)는 조선에 스스로 자기 부모가 원래 조선 사람인 것을 이유로 머물러 백성이 될 것을 희망하여 허가를 받고 있다(세종 23년 6월 기축). 1430년 엽포에 나타난 왜인인 이라, 삼보라(而羅, 三甫羅=次郎, 三郎) 등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예전에 왜국에게 잡혀갔는데, 지금은 엽포의 왜관 근처에 살며 어로를 생계로 할 것을 청했다.”(세종 12년 윤12월 신해) 1510년 삼포왜란 직후 경상도 관찰사는 이라다라(而羅多羅)라는 왜인에 대하여, “일본의 왜인이 아니고, 처를 제포에서 맞이하여 항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마을 아주 잘 이해하고 상당히 지략이 있으며, 속임수에 뛰어나다.”라고 보고하고 있다.(중종 5년 6월 임자)³⁸⁾

37) 연민수,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44쪽 참조.
38)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앞의 책, 1995, 49-50쪽.

602년 4월 왜군의 신라출전 준비가 완료되었다.

(推古10年(602)2月)“來目皇子로 擊新羅將軍으로 삼고 諸神部 및 國造, 伴造, 등, 并軍衆 2萬 5千을 주었다.(推古10年(602)4月)“將軍 來目皇子 筑紫에 도착했다. 이내 屯鳴郡으로 나아가 船舶을 모으고 軍糧을 운반했다.”³⁹⁾

602년 왜군이 군대를 九州에 집중시키자 8월 백제 무왕은 군대를 리산 중턱에 위치한 아막성으로 진군시켰다. 현재 전북 남원시 引月面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의 경계 팔랑치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3년(602) 8월조를 보자.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아막성을 포위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정에 기병 수천 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⁴⁰⁾

602년 8월 백제군 선발대가 아막성을 포위했다.⁴¹⁾ 진평왕은 기병을 아막성에 급파했다. 그러자 백제군이 철수했다. 이보다 2달 전 九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0년(602) 6월조를 보자.

39)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0年(602)2月, “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 授諸神部及國造 伴造等 并軍衆二萬五千人.”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0年(602)4月, “將軍來目皇子到于筑紫 乃進屯鳴郡 而聚船舶運軍糧.”

40) 『삼국사기』 권27, 무왕 3년 8월, “秋八月 王出兵 圍新羅阿莫山城 [一名母山城] 羅王眞平遣精騎數千 拒戰之 我兵失利而還.”

41) 『삼국사기』 권27, 무왕 3년 8월, “가을 8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아막성(母山城)이라고도 한다)을 포위했다.”

6월 丁未朔己酉에……이때 來目皇子는 병에 걸려 신라 정벌을 다 하지 못하였다.

앞서 6월에 신라를 침공하려던 倭將 來目皇子가 臥病으로 누웠고, 출병은 연기되었다. 3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신라에게 중요한 국면 전환이었다. 백제본기의 무왕 3년(602) 8월 조의 아막성 전투 도입 부분을 보자.

가을 8월에 (무)왕은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 아막성을 포위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정예 기병 수천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신라가 소타, 외석, 천산, 웅잠 등 네 성을 쌓고, 우리 변경에 침범하였다. 왕이 노하여 좌평 해수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그 네 성을 공격케 하였다. 신라 장군 건품, 무은이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싸웠다. 해수가 불리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泉山 서쪽의 소택지로 퇴각하여 보병을 숨겨 놓고 기다렸다.⁴²⁾

전투는 백제의 선공으로 시작되었지만 신라가 구원병을 보내 반격을 했다. 왜군 2만 5천의 九州 주둔 자체가 여전히 신라군의 병력 일부를 남쪽에 묶어 두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倭將 來目皇子의 臥病과 이로 인한 왜의 침공지체는 신라가 백제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주었다. 『삼국사기』 귀산전은 아막성 전투의 전체 결과를 이렇

42) 『삼국사기』 권27 무왕 3년 8월 조, “三年秋八月 王出兵 圍新羅阿莫山城[一名<母山城>] 羅王眞平遣精騎數千 拒戰之 我兵失利而還 新羅築小陀畏石泉山 襲岑四城 侵逼我疆境 王怒 令佐平解讎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 帥衆拒戰 解讎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 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貴山大言曰 吾嘗受教於師 曰 士當軍 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卽與小將箒項 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僅免 單馬以歸.”

게 전하고 있다.

“적(백제군)의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여 한 필의 말, 한 채의 수레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왜군 不進擊의 틈을 노린 신라의 필사적 역공이 決戰을 이끌어냈고, 백제군을 전멸시키기까지 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인 603년 2월 來日皇子가 죽었고,⁴³⁾ 그해 7월 왜군은 구주에서 철수했다. 皇子의 와병과 죽음이 백제군 전멸이란 결과와 왜군의 철군에 영향을 주었다.⁴⁴⁾

延喜 17(917)년 藤原兼輔(877-933)에 의해 찬술된 것으로 전해지는 『聖德太子傳曆』⁴⁵⁾ 上卷7, 十年(三十一歲 602), 夏 4月 조는 그의 와병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來日皇子가 筑紫에 도착했는데, 臥病으로 不進했다. (聖德)太子가 그것을 듣고, 左右에게 말하기를 “新羅奴 등이 將軍(래목황자)을 厭魅(저주)함이 果度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聖德太子가 新羅(奴) 등이 장군인 황자를 저주하여 병이 걸렸다고 좌우에게 말했다. 성덕태자가 九州에서 신라 간첩들의 활동을 의식하고 있었고, 동시에 신라가 九州에서 왜군의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하나의 방증일 수는 있다. 『聖德太

43)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1年(603) 2月 丙子, “十一年春二月癸酉朔丙子 來日皇子薨於筑紫 仍驛使以奏上 爰天皇聞之大驚 則召皇太子 蘇我大臣 謂之曰 征新羅大將軍來日皇子薨之 其臨大事而不遂矣 甚悲乎”

44) 徐榮教, 『阿莫城 전투와 倭』, 『歷史學報』 216, 2012.

45) 『聖德太子傳曆』과 和銅의 日本 『日本記』 그리고 『日本書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坂本太郎, 『『聖德太子傳曆』と『日本書紀』』, 『南都佛教』 29, 1972, 1~10쪽; 『日本古代史叢考』, 吉川弘文館, 1983, 1~21쪽.

子傳曆』上卷, 7 추고 11년(603) 2월 癸亥조에도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보인다.

“大將軍來目皇子薨於筑紫, 太子謂侍從曰, 新羅奴等遂殺將軍”

신라정벌을 위한 대장군인 來目皇子가 新羅奴에게 살해되었다고, 聖德太子가 그의 시종에게 말했다. ‘新羅奴’는 왜국에 잠입한 ‘신라놈’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신라노 ‘等’이라는 표현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신라 놈들이 와서 내목황자를 죽였다는 뜻도 기능은 하다. 사실유무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라에 대한 적대감정이 신라인을 범인으로 몰아넣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으며,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료로 보기도 한다.⁴⁶⁾

『聖德太子傳曆』은 우리의 기록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편찬연대가 빠르다. 신라의 정보원들이 九州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신라가 삼국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자객을 九州에 보내 신라침공의 수뇌인 총사령관 암살을 시도할 충분한 이유만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시기 신라는 자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왜군이 筑紫에서 한반도 로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며, 境界人들을 적극 매수하여 자국에 유리한 상황이 오도록 이용했을 것이다. 新羅奴로 표기되었다고 하나 그들이 곧 간첩교육을 받고 파견된 신라인으로는 볼 수 없다.

그들이 九州 筑紫國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 境界人들과 관련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대를 달리하지만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1512) 8월 24일 정미 조를 보면 博多 등의 섬에 흩어져 살고

46) 연민수, 앞의 논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가연조기(加延助機)와의 별종(別種)가 하카다(博多) 등의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항상 처자를 배에 싣고 다니면서 도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낮빛은 검고 털은 누르며 言語와 服飾이 여러 倭人과 다르고, 활을 쏘는데 능숙하고 또 칼을 잘 쓰며, 물속에 잠수해 들어가서 배를 뚫는 것이 가장 뛰어난 그들의 장기이다.⁴⁷⁾

加延助機는 海賊의 日語發音 가다조쿠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그들은 境界人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⁴⁸⁾ 대립하는 양국은 경계인들을 서로 타국의 명칭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 신라와 왜조정은 자국의 통치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境界人을 서로 倭寇나 新羅奴로 불렀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3시기로 나누어 신라와 왜국 사이에 존재했던 경계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가 수동적으로 왜의 침공을 받던 시기, 신라가 적극적으로 왜의 내란에 개입하고 가야를 병합해 나아가던 시기, 蘇我氏가 倭朝廷을 통일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麗濟와 손잡고 신라를 압박 하던 시기가 그것이다.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시기인 신라 訥祗王大 왕제 未斯欣의 탈출기를 전하는

47)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1512) 8월 24일 정미 “且加延助機 倭之別種名 散處博多等島 常載妻子於船中 以作賊爲事 面黑髮黃 言語服飾 異於諸倭 能射又善用劍 潛入水底鑿船 尤其所長.”

48)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앞의 책, 1995, 50쪽.

기록들 가운데 『일본서기』 신공황후섭정기 기록이 보다 원형적인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 모습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新羅 訥祗王이 박제상(毛麻利叱智) 등 3인을 왜국으로 보냈다. 그들은 人質로 와 있던 未斯欣(微叱許智伐旱)을 신라로 돌려보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未斯欣을 설득하여 다음과 같이 왜왕에게 속여 말하게 했다. 신라 使者들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왕이 제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처자를 모두 종으로 삼았다고 하니. 바라건 데 잠시 본토(還本土)로 가서 그 사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왕이 청을 들어주었다. 신라사신들과 未斯欣에게 葛城襄津彦을 붙여서 對馬로 보냈다. 對馬 鋤海水門에 숙박하였다. 그때 新羅使者 박제상 등이 배(船)와 선원(水手)을 몰래 구하여 未斯欣(微叱旱岐)을 배에 태워 新羅로 도망하게 하였다. 新羅使者 3인은 화형에 처해졌다. 『삼국유사』에는 그 水手の 이름 康句麗가 보인다. 그는 對馬島에 맞은편 부산에 이르는 바닷길에 능한 사람으로 양측을 그 전부터 오고갔던 경계인이었을 것이다.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對馬島 조에 “(對馬島에서)배를 타고 남북(한반도 남부와 九州)으로 돌아다니며 교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기인 신라 법흥왕대이다. 527년 이전부터 신라는 九州 筑紫國의 磐井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추측 된다. 新羅海邊人들을 통해 磐井가畿内の 왜조정에 반란에 뜻을 두고 있었던 것을 감지한 신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磐井에게 貨賂(뇌물)을 제공했다. 그러자 磐井는 火國(肥前國·肥後國)과 豊國(豊前國·豊後國)을 억압하여 海路를 차단하고, 高句麗·百濟·新羅·任那의 朝貢船을 자신의 쪽으로 유치하였다. 신라는 磐井에게 인력도 지원했다. 新羅海邊人들이 磐井의 從者로 활동했다.

九州 磐井은 畿內朝廷과 전쟁으로 치달았다. 일본고대 최대의 내전

은 그들의 군사력을 소진시켜, 가야지역에 대한 왜의 영향력을 절대 감소시켰다. 신라가 가야지역을 병합해 나아가던 시기, 新羅海邊人들은 磐井와 신라 양자의 유대관계를 매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내전(磐井亂)에도 참전하여 신라가 가야를 병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인 신라 진평왕대이다. 601년 고구려-백제-왜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신라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었다. 왜국에서 신라 침공을 위한 준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신라는 간첩들을 현해탄 도서지역에 적극적으로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들 중 한명이 對馬島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이름은 迦摩多였다. 발음으로 가마다를 일본식으로 漢子化 시키면 釜田이 된다. 그 명칭으로 볼 때 그는 틀림없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境界人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602년 백제와 왜가 신라를 동시 공격하기로 하고 백제는 지리산 중턱 아막성으로 4만 군대를 진군시켰고, 왜는 九州에 병력 2만 6천을 주둔시켰다. 그런데 6월 九州에서 신라를 향해 출발하려던 왜군의 총사령관 來目皇子가 筑紫에서 병에 걸려 드러누웠고, 출병이 연기되었다. 8월까지 왜가 늑장을 부리자 홀로 출동한 백제군 4만이 아막성과 그 子城들 주변에서 신라군에 의해 전멸 당했다. 왜의 한반도 출동을 막은 皇子의 와병이 백제군 패배의 중요한 변수였다.

917년 藤原兼輔에 의해 찬술된 『聖德太子傳曆』 602년 4월 조를 보면 來目皇子가 筑紫에 도착했는데, 臥病으로 不進했다. (聖德)太子가 그것을 듣고, 左右에게 말하기를 “新羅奴 등이 將軍(래목황자)을 厭魅(저주)함이 果度하지 않았나 의심된다.”라고 하였다. 성덕태자가 九州에서 신라 자객들의 활동을 의식하고 있었다. 같은 책을 보면 603년 2월에 來目皇子가 사망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聖德太子가 그의 시종

에게 이르기를 皇子가 新羅奴에게 살해되었다고.”라고 한다. 新羅奴는 ‘신라놈’이다. 신라노‘等’이라는 표현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신라의 정보원들이 九州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신라가 삼국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자객을 九州에 보내 신라침공의 수뇌인 총사령관 암살을 시도할 충분한 이유만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시기 신라는 자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왜군이 筑紫에서 한반도 남부를 향해 出港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며, 그를 위해 신라는 新羅奴로 불리는 境界人들을 九州에 잠입시켜 활동하게 했다.

倭侵의 질곡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상의 경계인들을 결집시켜 활용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경계인들이 신라 영토 내에 고정된 농민들과 존재 양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들은 훈육되지 않았고, 바다라는 무한환경에 적응된 야생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해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경계인들을 신라가 활용하는데 있어 그들에 욕망에 배치되는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계인들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어렵다.

무엇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兩지역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계인 여러 집단들은 각자의 이해가 있었고 보아야 한다. 신라국가는 경계인들의 여러 욕망을 어떠한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그들의 자발성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 고민했을 것이고, 신라의 존속과 팽창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는 정책이 고안되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신라국가의 아래 관리되지 않으면 倭寇로 돌변하거나, 倭 조정의 이용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志』 『日本書紀』 『聖德太子傳曆』 『先代舊事本紀』(『國造本紀』)
『三國史記』 『三國遺事』 『朝鮮王朝實錄』

2. 저서 및 논문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중세 왜인의 세계』 小花(翰林新書 37) 1995.
정순일, 『속일본후기』 所收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島嶼之人’, 『日本歴史研究』 37, 2013.
정효운 『6세기 동아시아 정세와磐井의亂』, 『日語日文學研究』 43, 2002.
延敏洙, 『新羅의 對倭外交와 金春秋』, 『新羅文化』 37, 2011.
연민수,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이재석, 『6세기 초 筑紫國 磐井亂과 신라』, 『新羅史學報』 25, 2013.

大塚恵治, 『岩戶山古墳と筑紫の政權』, 『古代王權と古墳の謎』, 吉川弘文館, 2015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49)1956.
柳澤一男, 『筑紫君磐井と‘磐井の亂’-岩戶山古墳-』, 新泉社, 2014.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 229, 1967.
徐榮教, 『阿莫城 전투와 倭』, 『歷史學報』 216, 2012.
水谷千秋, 『継体天皇の戦い』, 『争亂の古代史古代日本國家成立への戦い』, 吉川弘文館, 2015.
_____, 『継体天皇と朝鮮半島の謎』(文春新書925), 文藝春秋, 2013.
坂本太郎, 『『聖德太子傳曆』と『日本書紀』』, 『南都佛教』 29, 1972.

투고일 : 2017.11.8. 심사완료일 : 2017.12.5. 게재확정일 : 2017.12.20.

| Abstract |

The marginal mans between Silla and Japan

Seo, Young-Kyo

The third century Chinese record of the peopl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island is as follows. The people of Tsusima island take a boat go north and south to commerce. This record is the most typical of the people who existed on the islands of the sea separating Japan and Korea.

The content of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the King of Silla, Nulji, was helped by the marginal man to rescue his brother who was hostage in the Japan.

Second, in the early 6th century, Silla, who took control of the eastern coastal area, took the Gaya territory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by triggering the civil war(磐井亂) in Japan. In the third and seventh centuries, Silla sent an assassin to Kill Japanese General who had attempted to invade his country.

Silla utilized the marginal man for their own benefit in competition with Yamato Japan. The marginal man is different from fixed farmers in Silla territory. They have not been disciplined and They adapted to the infinite environment of the wildly sea.

So Silla did not have a policy against the desires of the marginal man They existed on numerous islands between Korea and Japan, they had their own desires. The Silla state tried to unite the marginal mans desires in one direction to get their spontaneity. The existence of the Silla state would have made it possible to promote their interests.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use

the marginal man themselves. If they were not under the control of Silla, they would have been able to turn into Japanese harrier or be subject to the Yamato Japanese regime

Key-Word : The marginal man, Tsusima, Silla Spy, Iwai War, Silla mariner, Silla enemy